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구

-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최선영

2011년 8월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구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용 환

최 선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최선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A Study on Appreciation Guidance of
Abstract Art in Middle School Education

Choi, Sun-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Yong-Hwan Kim, Prof. of Art Education
.....
.....
.....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구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최 선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최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미술 작품은 더 이상 특정인만 즐기는 고급문화가 아니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 추상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추상미술의 개념과 다양한 표현은 고정된 우리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새로운 시각 예술세계에 눈을 뜨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상화는 다양한 예술 및 디자인의 분야에도 응용되어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추상경향의 예술 작품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 의미를 내포한 작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 교육하는 전문지식이나 연구가 부족하여 추상회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회화를 이해하고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과 실제 미술과 수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추상화 감상 지도 학습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새로 개편된 5종<교학사, 지학사, 일진사,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미술 교과서를 가지고 출판사별로 추상회화 영역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교과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교과서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 중학교 미술교과서 추상회화 감상의 효율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5종<교학사, 지학사, 일진사,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는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수업시간의 배정이 중요하다. 현행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수업 시수는 많이 부족하고 미술 수업의 부족한 시수는 교사로 하여금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추상회화 감상은 현대 미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균 3시간~4시간 정도는 배당되어 져야하며,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추상회화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미술교과서는 기능적이고 사실 재현의 회화수업이 많고 추상회화 단원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미술 5종 교과서 분석 결과 추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추상회화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나 미술사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동일 평면위에 놓고 균형 있게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는 추상관련 참고 작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술 교과서는 다양하게 내용과 적정한 영역별로 편성하여 교과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학생의 창의성과 개성을 신장 시킬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추상회화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의 교과서에 안주하기 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교과서에 제시된 회화작품 360점 중 작가의 작품은 276점(77%)이고 학생작품은 84(23%)점으로 비율이 나타났고, 기성 작가에 비해 학생 작품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교과서 상에서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학생들의 작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같은 학생의 작품을 보면서, 쉽게 배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술교과서 집필진의 중학교 현직 교사는 비교적 집필자수 중 현직교사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반영하고 좀 더 융통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 위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는 몇 개의 단원을 혼자서 집필하다 보면 전문성 또는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각 영역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집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추상회화 감상 능력을 기르고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상회화 감상교육을 이해하고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추상회화 영역 분석하여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내용 및 방법	3
II. 추상회화 감상교육의 이해	4
1. 추상회화의 이론적 배경	4
2. 미술 감상교육의 이해	15
3. 미술 감상교육의 지도	18
III. 현행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추상회화 감상교육	26
1. 미술 교과서의 내용 체계	26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추상회화 내용 분석	28
IV. 중학교 추상회화 감상의 지도방안	49
1. 추상회화 감상교육 향방	49
2. 추상회화 감상 지도안	51
V.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수업단위 시수 비교	26
<표 2>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류	28
<표 3> 교과서 단원별 집필자 전공 현황	29
<표 3-1> 교과서 단원별 집필자 현직 교사 수 비교	29
<표 4> 교과서 영역별 단원 수 분석	31
<표 4-1> 각 영역의 비율	31
<표 5> 미술교과서 감상영역 분석	32
<표 6> 교과서 관련 다원 영역별 분석-미적체험	38
<표 7> 교과서 관련 다원 영역별 분석-표현	40
<표 8> 교과서 관련 다원 영역별 분석-감상	45
<표 9> 추상회화 참고 도판 분석	47
<표 10> 교수·학습 지도안	53
<표 11> 칸딘스키 세부 지도안	55
<표 12> 몬드리안 세부 지도안	57

그 립 목 차

<그림 1> 칸딘스키의 Untitled	12
<그림 2> 칸딘스키의 구성9	12
<그림 3> 몬드리안의 붉은 나무	14
<그림 4>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의 부기우기	14
<그림 5> 여자들이 있는 무르나우의 거리	59
<그림 6> 낭만적 풍경	59

<그림 7> 검은 곡선이 있는 그림	59
<그림 8> 인상 V	59
<그림 9> 즉흥19	59
<그림 10> 구성5	59
<그림 11> 교회가 있는 마을	60
<그림 12> 격자구성 No.9	60
<그림 13>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	60
<그림 14> 구성	60
<그림 15> New york, New York	60
<그림 16> Victory - Boogie-Woogie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 교육의 개념은 표현과 감상 활동의 경험을 통해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다양한 창의적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많은 시각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미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미술 애호가를 기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창의성과 올바른 미적 선택을 위한 미술교육은 표현활동에서 보다는 오히려 감상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감상 교육지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감상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렇듯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해 미술교육은 현대 교육이 지향하는 바탕위에서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술 교과가 갖는 특성에 맞추어 미술교육 목표에 부합되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표현중심의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상교육은 내용이나 취급방법에 있어 매우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일부에서 감상교육이 행하여지고 있더라도 그저 작품을 보여주는 정도이거나 표현활동 후 그 작품을 대상으로 화면 구성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쳐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상활동은 단지 보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별도의 교육을 필요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미술 감상교육을 받을 수

1) 교육부(1997),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p.28.

있는 기회가 극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감상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선 교사는 미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학생들에게 확산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의 지속적인 제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의 미술을 누리고 윤택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사물의 재현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정신적인 가치의 표현인 추상회화를 감상수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감상수업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추상회화에 대한 특징을 이해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작품 감상이라는 수업매체를 통하여 추상회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2. 내용 및 방법

연구를 통해 추상회화 감상교육의 체계적이고 실직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미적 안목을 함께 발전시켜 예술작품에 대한 흥미안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회화를 이해하고 추상회화의 개념과 흐름 및 유형을 살펴봄으로서 추상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추상회화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미술 감상의 개념과 교육의 의미를 살펴 미술 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미술 감상 교육의 과정과 유형을 파악하여 감상 지도방안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2010년에 1,2,3학년의 내용을 모두 통합시킨 새로운 중학교 미술 교과서 중 5종의<교학사, 지학사, 일진사,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교과서를 가지고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미술 교과서의 내용체계와 출판사 별로 단원분석 및 도판에 관해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지도방안을 토대로 추상회화의 이론 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추상회화에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각자 스스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여 평가하는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Ⅱ. 추상회화 감상교육의 이해

1. 추상회화의 이론적 배경

1) 추상의 의미

추상(抽象)이라는 말은 “라틴어 ‘abstrahere’ 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추상의 미학적 개념도 그와 비슷하여 표상에서 공통되는 측면이나 성질을 뽑아내어 사유의 대상이 되는 ‘정신 작용’ 또는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추출하여 파악하는 심적 작용’ 을 의미하며 사전적으로는 ‘대상의 전체에서 공통되는 특성의 요약, 발췌’ 를 말한다.”²⁾

추상화는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는 조형 작업으로 다분히 철학적이며 개념적이다. 처음에는 대상의 변형에서 시작되나 점차 자연과 완전히 결별하고 화가의 머리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사물의 본질이 점차 자연과 관계없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물로 그려지면서 순수성이 강조되는 추상화가 탄생되었다.

또한 “추상을 ‘자연에서 추출하다’ 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추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오랜 고대시대부터 추상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선사시대와 고대 이슬람 등의 유물들에 찾아볼 수 있는 간략하게 기호화시킨 이슬람 미술의 아라베스크 선은 훌륭한 추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추상 미술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연에서 추출되어 기호화된 형태라고 해서 전부 추상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³⁾

이와 같은 의미에서 추상화의 등장은 20세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캔버스에 그려진 사실적 형태는 더욱 변형되면서 완전히 파괴되어 나가고 색채는 대상과 거리가 먼 주관성을 갖는다. 공간 표현은 원근법을 무시한 비현실적 공간의 등장으로 일루저니즘⁴⁾과의 완전한 결별이다. 이후 현대 미술은 구상화와 추상화의 구별이 이루

2) 오광수(1988),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p.41

3) 김현화(2001),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p.15

4) 일루저니즘(illusionism):환영주의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자연주의 화풍에서 중요시되는 문제로 환영을 뜻한다. 정밀묘사와 원근법 등을 이용하여 그려진 것을 실재라고 생각하도록 눈을 속이는 회화의 특성을 말한다.

어지며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반추상화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반 추상화는 추상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제 추상화는 자연의 이미지를 철저히 거부하고 순수한 조형적 표현성과 지적인 관념에만 집착한다. 비록 추상화가 여러 현대 미술 사조와 작가들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나 기본적인 것은 사물의 환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추상주의 화가들이 주장하는 기본 이론은 재현적 묘사 그 자체가 허상이며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며, 추상화는 눈속임이 아닌 솔직함 그리고 순수 색과 형이 갖고 있는 절대적 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08년 <추상과 감정 이입> 논문에서 빌헬름 보링거(Wilhelm Worringer, 1881~1965)는 자연의 인상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내적 불안으로 추상 충동이 이루어져 추상화가 그려진다고 말한다. 곧 추상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화를 나타내는 징조라고 말한다. 그의 또 다른 해석으로 현대에 있어서 불가피한 추상의 등장은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문명의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불확실성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현대적 스타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칸딘스키는 자연의 인상에서 즉흥과 구성 단계를 거친 추상화 작업에 보링거의 추상 이론을 수용하면서 발전시킨다.”⁵⁾ 이제 미술은 선과 색의 순수성이나 자율성을 찾아 나서는 작업으로 추상화의 본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진다. 보링거의 미학과 칸딘스키의 실천적 접목에서 시작된 표현의 자유 의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표현 양식을 탄생시킨 것이다.

추상화란 무엇인가는 위의 현대 미술 사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들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추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추상회화의 발생 및 발전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미술사에 있어서도 원근법과 명암의 표현 등을 통한 외부의 세계를 환영으로 대상을 재현하고, 주제를 훌륭하게 소화해 내는 전통적인 미의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논리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20세기 초는 서구의 화가들은 과학 기술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또 다른 표현에 회화를 꿈꾼다.”⁶⁾ 다양한 사조나 유파가 등장하게 되며

5) 유재길(2001),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p.15

추상회화는 1910년 전후에 탄생된다. 이는 자연의 형상을 변형시켜 추상화한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탈자연주의 시도와 러시아의 절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구성주의 작품이 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이들은 야수파의 추상적 색채와 입체파에서 시작된 형태분석과 새로운 공간을 수용하면서 추상회화를 탄생시킨다. 1850년 프랑스에서 야수파, 독일에서 표현주의 그룹인 다리파, 1907년 피카소의 입체파 운동, 1909년 미래주의 1910년 러시아 구성주의,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실현적 추상회화가 탄생된다.

한편, “앵포르멜 (Informel)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미술’ 을 알리는 첫 전시회들이 열린 곳은 바로 방돔 광장에 위치한 고급화랑 「르네 드루앵(René Drouin)」 이었다. 1944년 10월 장 뒤뷔페(J. Dubuffet, 1901~1985)의 첫 전시회가 열리고 다음해 두루앵은 포트리에(J. Fautrier, 1898~1964)에 의해 <인질-Otage>연작과 볼스(Wols, 1913~1951)의 작품, 그리고 다시 뒤뷔페의 <오프 빠뜨 Hautes Pates>의 작품 등이 서정적 추상으로 발표된다. 그림의 ‘단혀진 공간’ 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그리는 행위와 그 행위의 창조적 자유는 회화의 주제가 된다.” 7)

그러나 추상회화의 발전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현상을 반영하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계보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의 추상성 (1980~1905)

인상주의는 ‘원근법’ 이라는 표현체계를 뛰어 넘는 극히 복합적인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빛과 대기에 의해 점차 변모하는 사물의 외양을 포착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평면, 선, 구성, 색채, 채질감 등의 다양한 구조적 요소를 부각시켜 나갔다.

“후기 인상주의의 작가 세잔느는 회화 구성요소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주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흔히 ‘미완성’ 상태로 놓아두는데 이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회화적 사실에 대한 그의 탐구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사 대상에는 항상 포착할 수 없는 부분,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잔느는 이 세계의 광대함과 생명력,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

6) 상계서. p.24

7) 장뤽 다발/홍승혜 역(1999), 「추상미술의 역사」, 미진사, p.109~110.

하기는 했지만, 선, 면, 공간과 구성, 그리고 색채를 통해 자연이 감추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표현하려 하고 동시에 대상에 대한 해석과 그 표현방식에 문제점도 제기한다.” 8) 그는 기호들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발견하고, 회화가 원래 조형적 요소들이 추상적으로 얽혀 있음을 직관적으로 엿어 나감으로서 회화에 새로운 시점을 제시해 주었다.

(2) 야수파의 추상성 (1904~1908)

“야수주의 대표적인 화가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색채를 형태와 같이 구조적으로 파악하면서 색채 자체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또한 빛을 물감의 색채로 포착하고자 하였고 색채의 대비로 빛을 만들었으며, 물감의 강렬한 원색은 관선을 발산하는 듯하다.” 9) 자유분방한 붓 터치와 색채의 자율성을 추구하여, 강렬한 원색 사용을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화면 전체의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추상으로 나가는 본격적인 시도로서, 색채의 추상성을 선도하고 있다. ‘색의 독립선언’으로 탄생한 야수주의는 색채 그 자체의 표현을 강조하여 회화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20세기 미술에 있어서의 회화적 혁명을 부여하려고 했다.

그 기능이란 색채가 본래 지니고 있는 색채 자체로서의 표현성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색채를 이른바 재현적인 기능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색채는 이미 자연의 연속에서 해방되어 자율적인 가치와 독립적인 질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야수주의의 실질적인 선구자인 마티스는 당시 몇 년 동안에 걸쳐 색채가 해방되는 것에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입체파의 추상성 (1908~1914)

입체파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종래의 이론에 반발하여 원근법, 단축법, 모델링, 명암법 등의 전통적 기법을 거부함으로써 화폭의 2차원적 평면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연을 예술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형태와 질감 및 색채와 공간을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상을 철저히 분해하여 여러 측면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사실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입체파의 대표적인 작가

8) 상계서, p.23.

9) 김현화(2001), 전계서, p.26~27.

파블로 피카소(P. Picasso, 1882~1963)와 조르주 브라크(G. Braque, 1882~1963)의 1909년부터 1911년경까지의 그림들은 분석적 입체주의라고 부르며,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1823~1883)는 인상주의의 전통에 속한다.”¹⁰⁾ 이때 그려진 그림은 형태의 분해나 분석을 보여준다. 주로 직각과 직선 구도가 많이 쓰였으며, 보는 사람이 화가의 주요관심사(형태 자체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색채를 제한했기 때문에 단색조(황갈색, 갈색, 회색, 크림색, 초록색, 푸른색) 계통의 경향을 보인다. 단색조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대상의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1912년에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두 번째 종류의 입체주의에는 종합적 입체주의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는 미술작품이 자연이 아닌 예술이나 인공물에서 유래한 각 요소들의 조합으로 창조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¹⁾ 이는 잠재된 기하학적인 명확한 형태에 대한 기호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형태의 결합 또는 종합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 입체파들은 형태가 보다 크고 장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분절적이고 평면적인 반면 색채의 역할은 한 층 증대되었다. 신문이나 담뱃값 같은 비회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물감으로 그려진 부분과 결합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매끄러운 표면과 거친 표면이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콜라주 기법은 질감의 차이를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회화에서 현실과 환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4) 미래주의 추상성 (1909~1918)

“미래주의는 러시아의 구성주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전개되었다. 미래주의 미술가들 역시 시대에 걸맞는 표현방식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은 기계 시대의 에너지와 난폭한 힘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미래주의는 열광적인 성격과 과장된 색채의 사용, 특히 빠른 동작을 느끼게 해주는 반복적인 선 등으로 현대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강조했다.”¹²⁾ 이러한 대상과 환경의 역동적인 관련성을 중시하며 빛과 공간을 일체로 표현하고자 했다. 역동성은 ‘선의 힘’으로

10) 노버트 린트/윤난지 역(1994), 「20세기의 미술」, 예경, p.69.

11) 상계서, p.70.

12) 필립 예나원/한국미술연구소역(2004), 「현대미술 감상의 길잡이」, p.202.

구체화되었는데, 선명한 원색, 빠르게 움직이는 사진, 나선형, 예각을 주로 이용해 그림에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조각도 마찬가지로 형태의 한계를 구분 짓는 것을 부정, 윤곽선을 파괴하였다. 이와 같은 미래주의는 기계가 지닌 차가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의 주제로 까지 높였으며, 스피드이나 운동과 같은 추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주위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역동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5) 다다이즘의 추상성 (1915~1923)

“다다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삶의 방식인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무질서한 자발서의 선언이며 관습적 태도에 대한 혐오이자 고발이다.”¹³⁾

포토몽타주의 발견은 다다의 반 예술적인 이미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매체로 이용되었고 다다이즘의 정신 즉, 반 예술과 허무적 니힐리즘(Nihilism)¹⁴⁾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현실에의 동참을 위한 해우이로서의 의미를 지닌 반 예술로서 받아들여졌다. 취리히 다다인 한스 아르프(Han Arp, 1887~1966)는 여러 물질을 화면에 조화시켜 우연의 효과를 표현하여 콜라주, 부조, 프로타주, 앓상블라주¹⁵⁾로 발전하였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일어난 포토몽타주(Photomontage)기법, 난센스 적이고 무의미성 우연성 요소를 이용한 막스 에른스트의 atagaga 기법의 추상화, 쿠르트 슈베틀러즈(kurt Schwitters, 1887~1948)의 메르츠 콜라주(Merz Collage)기법의 추상화 등 2차원의 영역이 3차원과 4차원의 영역까지 표현되어진 집단으로,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기존 예술양식과는 관계없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고자 했던 운동이었다.

(6) 초현실주의 추상화 (1920~1930)

초현실주의 의미는 인간성의 근원인 환상, 꿈, 상상 등을 열어 보이는 것과 의식에 의해 속박되지 않은 상상력의 권리 회복과 궁극적인 인간정신의 해방이며, 초현실주의자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광기, 욕정, 환상들을 해방함으로써 정

13) 장뤽 다발/홍승혜 역, 전게서, p.67.

14) 니힐리즘(Nihilism)의 기본형태: a) 기존의 가치 붕괴에 의한 무의미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도피적 형태와 b) 미래의 가치를 창조함 없이 기성의 것에 반항하는 파괴적 형태.

15) 앓상블라주(Assemblage): ‘집합’, ‘긋어모으다’는 뜻, 생활 주변적인 물품이나 폐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함.

신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무의식과 직관적 회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는 구상과 추상적 형태의 환상적 이미지들을 화면에 가득 채운다. 특히 달리를 비롯하여 마그리트, 델보 등은 대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초현실의 구상화를 제작하며, 에른스트는 환상적인 느낌의 실험적 기법으로 구상과 추상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 준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는 프로타주(문지르기)나 콜라주(붙이기) 등 의식 속에서 나온 기법으로 무의식 세계를 연출한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추상적 형상 사실적 대상의 묘사로 혼합된 이미지들이 바로 초현실세계이다.”¹⁶⁾라고 하는 반면 실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우연한 이미지를 화면 속에 접합시켜 작가의 상상력과 가공으로 꾸민 세계를 그렸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제작 행위를 편집광적 비판 방법이라 불렀다. 이와 함께 달리는 우연한 이미지에 의한 회화이다.

3) 추상회화의 유형

(1) 칸딘스키의 서정적 추상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인간의 내적 필연성,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연 대신에 인간의 사유작용을 표현하는 것이 추상이라고 정의 한다. 추상미술은 분명히 20세기의 발명이다. 중세 기독교미술도, 종교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미학적 탐닉과 정신성을 표현하기 한 것이 아니다. 추상은 르네상스시대 휴먼니즘 부활과도 같은 획기적인 것으로, 20세기인들이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연 대신에 인간의 철학과 사유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⁷⁾ 따라서 자연적 대상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순수한 선과 색의 묶음으로 작품을 표현 하였다. 사실적인 형체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최초의 화가이다. 재현회화로부터 우연한 계기로 내적 필연성을 깨달아 자신의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색으로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비구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16) 유재길(2001), 전계서, p.62.

17) 김현화(2001), 전계서, p.10.

“1908년 칸딘스키는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그림에서 재현적인 요소가 없어진 추상적 표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나는 갑자기 표현 불가능한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한 폭의 그림을 대하게 되었다… 그 그림에는 주제가 없었으며 식별할만한 어떠한 대상도 묘사되지 않았다. 화면은 다만 색채의 찬란한 얼룩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은 상하가 뒤바뀐 나의 그림이었다. 이것은 추상 미술이 탄생되는 하나의 작은 계기이다.” 18)

상하가 형태의 조화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추상미술을 탄생시키게 된 발단이 되었고, <청기사 연감지(Almanach Blaue Reiter)>를 통해 그는 청각적인 리듬을 회화의 리듬으로 전화시키고 색채를 음악의 화음과 연결시켰다.

“1916년 동료화가이자 애인이었던 뮌터(G. Munter, 1877~1962)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림은 인생의 기쁨이나 혹은 우주의 행복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살린 위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포부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형태 속에 우주의 기쁨과 삶을 담고자 하였으며 행태는 각기 내면의 세계를 가지며 의미와 상징을 자지고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즉, 칸딘스키는 형태 하나하나에 의미와 상징을 두면서 외형상의 형태보다는 은폐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태와 색채의 상관관계, 색채와 색채끼리의 조화, 형태와 형태끼리의 균형과 하모니 그리고 놓여져 있는 위치와 상태의 변화에 따른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다.” 19)

그는 “순수한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 속에서 오로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20)고 말하며, 내면의 감정체험을 중요시하여 서정적이며 뜨거운 추상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일탈하여 선명한 색채로 추상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구성적인 양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 조형주의의 개념에서 출발한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발전의 자취를 남겼다.

<그림 1> 작품은 1909년경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주관적 표현은 마침내 구체적인 대상성을 벗어날 수 있게 했는데, 대상이 없이도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표현의 자율성을 보여 준 최초의 작품이 된 셈이다.

18) 이윤구(1998), 「미술실에서 미술관 까지」, 두산동아, p.378.

19) 김현화(2001), 전개서, p.145~147.

20) W. Kandinsky(1987),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p.17.



<그림 1> 칸딘스키의 Untitled

밝은 원색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약동적인 이미지가 흘러는 것과 깊은 터치로서 자유분방하게 그려지고 있다. 흐르는 필치와 얼룩은 일견 아무렇게나 그려진 장난스런 아이들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적 충동을 적절히 조정해 간 조형적 논리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그림 2> 칸딘스키의 구성9

<그림 2> 작품은 칸딘스키 예술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화려한 색채의 기하학적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형태들이 드라마틱하게 전개 되고 있다. 색채를 단지 색채로서 즐기고 형은 형 그대로 사랑하였다. 점과 선의 변주로 보이는 형태들의 다이내믹한 운동 가운데에서 장려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은 만년의 다작이기도 하다.

“1922년 그가 '바우하우스의 교단에 서게 되자, 그의 화풍은 일변하여 기하학적 형태나 선에 의한 구성이 작품의 주축이 되기 시작하였다. 유동적인 색채의 난무는 돌변하여 점, 직선, 호, 파상선, 원, 삼각형 등의 견고한 모양이 미묘하게

조화되어 등장하였다. 만년이 되면서 칸딘스키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요소가 다시금 후퇴하여 무한하게 전개되는 풍부한 형이 서로 얽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21)

그러므로 직감적인 초기의 작품과 지적인 중기의 화면이 여기에 종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차갑다거나 뜨겁다고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추상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2)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

1917~31년 동안 네델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며 미술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 힘썼던 인물이 바로 몬드리안이다. 1910년, 몬드리안은 파리로 나와 세잔느와 입체주의 화가들의 전시를 관람하고, 공간에 부피를 표현하려고 했던 입체주의자들의 그림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삭제시켜 평면으로 만드는 작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피카소가 단순화시켜 놓은 입체 덩어리를 몬드리안은 평면으로 만든 것이다.

몬드리안은 1917년 데스틸(De Stijl)²²⁾이라는 그룹을 결성하였고, 일년 후 파리에서 ‘신 조형주의’를 창시했다. 신 조형주의는 화면에 수직, 수평선만 남기고 빨강, 노랑, 파랑의 색 면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특징으로 엄격한 절제를 이루었다.

“몬드리안은 변하는 자연의 외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세계, 대로는 절대적 세계로서 종교적인 감정까지를 내포한 세계의 추구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은 형태의 불변의 기본적 요소인 수직과 수평, 그리고 제한된 원색이었다. 몬드리안의 1920년대 이후 그의 작품 속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찾아볼 수 있다.”²³⁾ 이는 명백한 표현의 절제라는 원칙에 지배하는 사조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더불어 기하학적 추상의 원류를 이룬다.

몬드리안은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²⁴⁾라고 말했다. 이는 자연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조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이와 같이 그가 미술사에 기여한 점은 완전한 추상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21) 오광수(1988), 전계서, p.112-113

22) 데스틸(De Stijl): 1917~28년에 몬드리안과 신조형주의를 널리 알린, 네델란드의 미술 전기 간행물이며, 이정기 간행물과 제휴했던 미술가 그룹에 주어진 이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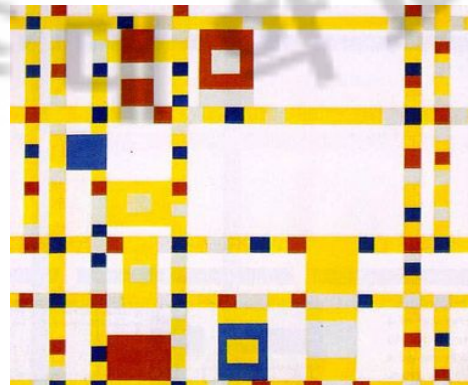
23) 상계서, p.89.

24)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01), 「클릭, 서양미술사」, 애경, p.260



<그림 3> 몬드리안의 붉은 나무

<그림 3> 작품은 나무라고 하는 대상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미 화가의 관심은 그러한 자연 묘사보다는 조형적인 구조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적과 청의 두색에 역점을 두고 있는 표현에서도 자연의 색에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색채의 탐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나무의 형태를 일종의 요소적인 적으로 환원시켜 가는 방향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나무 가지들의 얽힘은 무구한 곡선으로 환원되어 중국에는 수평과 수직의 작은 선들로 요약되어가는 일종의 추상화의 진로를 암시해 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림 4> 몬드리안 브로드웨이의 부기우기

<그림 4> 작품은 44년 사망하기까지 약 4년간 뉴욕에서 체류하면서 만년의 부기우기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1920년대의 엄격한 구성의 작품에 비하면 한결 밝고 리드미컬한 생의 환희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강한 흑선은 사라지고 대신 밝은 3원색과 무채색의 토막들이 연결되어 커다란 구성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일견 복잡하고 현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브로드웨이의 복잡, 네온의 불빛, 자동차 소리, 무엇보다 몬드리안이 좋아한 부기우기의 리듬은 대도시의 생활 체험이 가져온 해방감으로 반영되었다.

2. 미술 감상교육의 이해

1) 감상교육의 의미

감상(appreciation)이란, “주체가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갖고 미를 체험하며 판단하는 정서와 사고의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감상에는 주로 시각을 활용한 미술 감상 외에도 창작을 활용한 음악 감상, 영화나 연극, 무용 등과 같이 시청각을 활용한 감상이 있다. 이 가운데 미술 감상은 조형품이나 자연에 대해 그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²⁵⁾ 또한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잘 생각하는 것, 바르게 평가하는 것, 온전하게 또는 예민하게 느끼는 것, 음미하고 이해하는 것”²⁶⁾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미술 감상은 작품의 미를 향수하는 정서적인 성격과 작품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지적인 성격의 두 행동이 동시에 필요하다. 더욱이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그 미술작품에 대하여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적, 외적 정보자료에서 끌어낸 근거로 그 판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예술 작품을 통하여 감동을 느끼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심신을 달래고 정서를 조화롭게 함양 하려고 한다. 올바른 미술 감상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하는 ‘자기 창조’의 교육이다. 둘째, 인간의 감성을 풍부히 하는 교육이다. 셋째, 시각 매체에 대한 인식과 창조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넷째, 감상은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다섯째,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여섯째, 다양한 인간상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자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일곱째, 표현의 동기를 낳으며, 창작과 향수의 질을 심화시키는 교육이다.”²⁷⁾

이러한 미술 감상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 대상을 보고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미술작품 속에 담겨있는 정서적으로 마음 깊이 감동받아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를 일깨워 준다.

25) 이은적 외(2005), 「재미있는 미술 감상 수업」, 예경, p.244.

26) 월간미술(2002),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98.

27) 박휘락(2003),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p.26~34.

그러므로 작품의 선, 색, 형태, 등이 조형언어와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해 미적 가치를 창조활동으로 향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미를 즐기고, 작품의 미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내면화 하는 과정으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 표현활동과 더불어 미술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상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이 지나치게 표현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미술교육에서는 표현뿐만 아니라 미적 안목을 가진 미술 애호가 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적 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현 감상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미술교과 학습 측면, 미적 체험 측면, 인격형성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감상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시기는 발달 과정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각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감상능력의 신장을 통해 조형적인 창조활동에서 오는 참다운 기쁨을 맛보게 함으로써 미술을 애호하는 심성을 가진 장래의 미술 애호가들을 기른다는 시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감상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자는 미술 작품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 여기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고양시켜 나간다.

둘째, 미술 감상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장래에 미술가로 성장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미술품을 관람하는 감상자, 즉 소비자의 입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교 미술교육을 마치고도 미술작품을 가까이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술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감상교육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TV, VTR, 각종 인쇄물, 광고 등의 다양한 시각적 매체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시각적 환경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비판하며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안목은 작품 감상을 통한 시각적 경험과 훈련 속에서 얻을 수 있다.”²⁸⁾ 이러한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중학 미술교육의 영역 중 감상부분이 더욱 강화된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미술 감상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미술작품 앞에서 개인적인 틀 속에 닫혀 있는 것을 피하면서 좀 더 예리한 눈, 예민한 감수성을 키우도록 해 주는 방향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대인적인 판단에 대한 설명과 그 판단 근거를 정의하는 능력 또한 키워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비로소 자발적인 감정이입, 객관적인 연구와 자유로운 사고의 조합 속에 해석의타당도를 갖는 감상 방법을 익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²⁹⁾

따라서 감상을 통한 시각적 경험과 훈련으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품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식과 보는 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8) 신춘재(2005), 「미술감상 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29) 이은적(2001), 「미술 비평과 감상 교육」, 미술 교육 논총 제12집 제 1호, p.30.

3. 미술 감상교육의 지도

1) 미술 감상교육의 과정

감상지도는 학생들은 감상을 통해 미적 대상을 보고 미적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미적 대상과 만남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능력을 육성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³⁰⁾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적절한 감상지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히 감상이 이루어지고 충족되어진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방법이나 과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감상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미적 인식의 발달이나 감상능력에 맞추어 적절하고 체계적인 감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감상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감흥은 비로소 깊어질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감상을 소화하여 내면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감상단계들은 누가 작품을 만들었는지, 언제, 어디서 제작했으며, 표현요소는 무엇인지 외재적인 형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미술작품을 논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판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서술의 단계, 형식 분석단계, 해석의 단계, 평가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지도한다면 체계적인 감상수업지도가 가능해진다. 각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술 단계

서술은 “미술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드는 단계이다. 즉, 서술이란 대상에서 보여 지는 바를 상세히 검사함으로써 미술 작품에서 특성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 결론이나 평가, 개인의 주관적 반응 등은 보류해야한다. 서술의 목적은 표현된 형태, 색상, 공간, 중량감

30)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33.

과 예술적 기교를 지적하는 것이다.”³¹⁾ 이처럼 시각적인 상징을 언어적 기술로 바꾸는 것으로 작품이 풍경화라면 나무, 새, 구름 등의 목록이 작성될 것이고, 추상화라면 조형요소, 원리, 구조, 색상 등의 목록이 작성될 것이다.

“제들메이어는 예술작품은 물체로서 존재하며 이것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해석됨으로써 비로서 예술작품이 된다고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³²⁾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즉, 빨강, 파랑의 색이라던가 점, 선, 형에 대한 것 등 시각을 통해서 보여 지는 것을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상적인 시각은 피하고, 작품의 객관적인 현상에 근거해야 한다. 보고 관찰한 것을 서술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술을 요하며 이러한 시각적인 상징을 언어적 기술로 바꾸는 훈련과정은 비평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며 다음단계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단계이다.

기술단계에서의 작품에 대한 질문으로는

- 작가는 누구인가?
- 작가의 배경(영향받은 화파 등...)?
- 작품의 제작시기와 장소?
-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 작품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하며,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선행된 자료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미술사적 기본 지식과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 내용은 분석단계를 위한 필요한 사상이 된다.

(2) 형식주의적 분석단계

분석은 “제들메이어는 구조분석을 통한 이해의 네 단계 중 두 번째가 가시적인 형식과 그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이해라고 이 단계에서는 직관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공간구성이나 색채의 배치의 질서가 정밀하게 분석되고 해명되며 그 양자간의 연관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라고 하였다.”³³⁾

31) 상계서, p.243.

32) 홍미애(2000), 「DBES에 기초한 미술감상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즉 미술작품의 화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식 분석은 서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서술단계에 이어서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형식적인 면의 특성에 대하여 관찰하고 언어화하며 토의하면서 발견하는 단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빨강색 바탕에 파랑 색의 점들이 찍혀있다’ 라고 하면 어떤 추종이나 작품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기술하는 단계가 서술이라 한다. 형식 분석 단계에서는 ‘빨강바탕에 파란색 점들이 한 줄로 찍혀져서 마치 선처럼 보인다. 바탕의 빨강색의 정열적인 인상과 차분한 인상을 주는 파랑색의 점의 대조는 서로 보색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더욱 두드러져 보여 진다’ 로 작품의 외적요인을 설명하는 단계이며, 외적요인으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이다. 즉 형식을 분석하는 것은 작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를 포착한다든지 작가가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³⁴⁾

형식주의적 분석단계에서의 질문으로는

- 작품에서 보이는 조형요소와 원리, 색 등의 성격은 어떠한가?
- 작품의 표현기법은 무엇인가?
- 작품의 재료는 무엇인가?
-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 강렬한 색채, 재미있는 주제, 분명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작품이 주는 의미를 해석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게해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주는 집중력과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해석단계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비평적 평가적 표현을 통하여 정밀하게 나타내는 과정이다.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술이 언제나 어떤 이념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33) 상계서, p.20.

34) 최순실(1993), 「감상의 단계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 감상지도의 방법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1.

혹은 암시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미술작품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는 가설, 즉 작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의 이념이나 원리를 정립한다.”³⁵⁾ 이처럼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주는 의미, 모티브, 내용,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작품의 모티브를 인지하고 주제를 이해하며,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상의 차이점을 판별하면서 작품을 이해한다. 미술작품은 명확하거나 암시적으로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내용이 감상하는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형성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보는 사람마다의 경험과 느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해석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작품의 의미와 받는 느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해석단계에서의 질문으로는

- 서술과 분석을 기초로 해서 느껴진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작품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상상하게 되었는가?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며 감상하는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형성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단계이다.

(4) 평가단계

“평가란 진가, 가치, 성공 등을 결정하고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미술작품에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명백한 기준과 근거를 수반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³⁶⁾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의 가치판단을 통해 작품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감상하여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단계에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이다. 비평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작품에 대한 ‘좋다, 싫다’의 단순한 호감 정도를 넘어서 앞 단계에서 서술 - 분석 - 해석단계를 통해 작품에 대해서 알았던 모든 근거를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품의 자치와 중요성을 알고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 본다.

35)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269.

36)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0), 전계서, p.245.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비평적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도해야 한다. 이 단계는 학생들에게 최종 단계이며 가장 바람직한 단계이다.

평가단계에서의 질문으로는

-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 작품감상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새롭게 배웠는가?
- 작품에 대한 느낌이 처음과 어떻게 변했는가?

이러한 감상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안목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다 개성적인 미적 안목과 올바른 선택적 비판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미술작품을 인식하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창의적 표현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4개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감상 수업을 하였을 경우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비평과 조형어휘를 사용 할 수 있게 지도하면서 좀 더 감상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학생은 논리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의 전개가 가능하다. 이는 감상교육이 지적이고 미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미술 감상교육의 유형

미술 감상 교육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수업은 각자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계획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감상지도는 감상을 주로하고 이해를 결들인 수업, 이해를 주로하고 감상과 표현을 결들인 수업, 이해를 주로 하고 감상을 결들인 수업, 표현을 주로하고 감상을 결들인 수업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수업 형태는 지도 목표와 내용, 환경적인 조건과 학습자의 조건 그리고 교사의 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쉽게 진행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상교육의 여러 유형을 참고문헌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토론법

토론법은 작품의 표현 특징이나 조형요소, 미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 발표하는 방법이다. 토론법은 지도 내용이나 감상의 주제에 따라 일제 감상법, 분단 감상법, 대담법 등으로 나눈다.

첫째, 일제 감상법은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다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법이다. 어린이들은 작품의 내용, 특징, 느낌 등을 발표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깊이 있는 작품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다.

둘째, 분단 감상법은 분단별로 분단원 중에서 사회자를 뽑고, 그 사회자의 안내를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토의한 후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방법이다. 이 때 모든 분 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대담법은 어린이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쌍씩 돌아가면서 감상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의 감상 토론법이다. 이는 좀더 개성적인 감상 관점을 발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신의 관점과 느낌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갖도록 하는데 좋다. 그러나 다인수 학급에서는 시간 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

(2) 제작법

제작법은 표현 학습의 유형에 속하는 적극적 감상이다. 회화, 판화, 서예 및 입체의 참고작품을 보고, 그대로 묘사하거나 특징이 되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제작해 보는 감상 방법이다. 사람들의 개성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작품에도 개성이 나타난다.

이 방법은 자신의 개성을 억제하고 작가의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개성을 살펴보고, 묘사하거나 그 특징을 옮겨 보는 가운데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에 공감할 수 있으며, 그 제작법은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으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다.

(3) 체험적 감상

체험적 감상은 “미술가나 교사에 의한 특정한 미술 매체를 통해 시법을 보거나 학생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술적 이해를 가져오는 가장 역동적인 수단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작품 활동인 교사나 여타 미술가들을 관찰하도록 하

는 것이다.”³⁷⁾ 자기 주변의 미술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있는 공방이나 미술가의 작업실이 있으면 찾아가 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작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문이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질문하거나 전시 중인 작가와 대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직접적 미술경험은 교실을 떠나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문화유적 등의 현장 학습을 직접적인 관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감상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한다. 이때 많은 작품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 교육이나 준비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곳에서 느낌으로써 표현을 위한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축적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찰, 느낌, 판단, 평가를 통해 미적 대상을 발견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길러진다. 문화의 시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자신이 향수 할 문화를 스스로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4) 관찰법

관찰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조형 요소나 구성 원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형태, 특징, 느낌 등의 특징을 지니는 작품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관찰법은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법, 분류법, 비교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석법은 입체작품이나 평면작품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작품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탐구태도를 기르는데 좋다. 이때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학, 조형론, 조각론, 회화론, 디자인론, 서예론 등 이론 서적이 제시하는 목차는 분석 항목으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

둘째, 비교법은 여러 작품을 놓고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고 특징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작품에서 선, 색, 명암, 질감, 형태, 주제, 재료 등이 유사하거나 다른 점을 찾도록 대비시켜 감상하게 유도한다. 이때 같은 평면작품이나 입체작품이라도 서양화와 한국화로 또는 같은 종류의 작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셋째, 분류법은 회화, 디자인 등의 여러 개의 작품을 보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유사한 것끼리 분류함으로써, 작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진술할 수 있는

37)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0), 전계서, p.153.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 학생들이 작품을 분류하고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 분류해 보는 일이 작품 감상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작품 감상에서 서로 구별되고 공통되는 특징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8)

(5) 모의 미술관법

“모의 미술관법은 전시법으로 시청각 자료나 화집, 복제품을 통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 전시를 통해 미술 작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 감상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39)

학생들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감상하는 방법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제적이고 활동적이며,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를 구체화시켜 주는 특징이 있다. 꼭 학생작품 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감상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 시청각 학습법

시청각 학습법은 근래에 와서 미술 감상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청각 매체에 의한 교육인데, 시청각 학습이란 간접체험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교육방법상의 연구로서 보조학습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미술과 수업도 최첨단 기술정보, 멀티미디어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교사는 일반 방송국이나 교육 방송국들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자어이나 학교에서 직접 시청하게 하여 감상 시키거나, 방영 내용을 녹화해 자료화하고 감상 수업에 활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0)

감상 교육의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상지도방법의 유형이다. 감상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는 지도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조건, 환경적 조건 등 감상의 수업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도 방법이 적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감상 방법 유형 중 고정된 방법에 연연하여 안주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상교육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과 꾸준히 연구,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통하여 감상의 통로를 넓히고 나아가 감상교육이 교육적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 연계되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감상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38) 조은정(2010), 「중학교 추상미술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29.

39) 이은적 외, 전게서, p.291.

40) 박휘락, 전게서, p.194.

Ⅲ. 현행 중학교 미술에서의 추상회화 감상교육

1. 미술 교과서의 내용체계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맞추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우고,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인적 성장의 바탕 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에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⁴¹⁾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은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은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축소되었던 중학교 수업 시간을 감안함과 동시에 학년별로 중복된 내용을 검토하여 축소 및 삭제 하였다.

<표 1>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수업단위 시수 비교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12학년
제6차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각 2시간	2시간	1~2시간	1~2시간	미술 I (4단위) 미술 II (4단위)	
제7차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각 2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2단위	선택 과목

<표 1>은 “제7차 교육 과정 총론에서는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교육 과정 편제상의 수업 수에 알맞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 내용의 조정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41) 한국미술교육과 교육학회(2000), 전게서, p.146~152.

지도록 하되, 주된 조정 방안으로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하는 방법, 학년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서의 미술 교과가 2단위(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I 이 4단위, 미술 II가 4단위)로 축소됨으로써 미술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정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⁴²⁾

교육은 그 방법과 내용 면에서 설정된 의도적 활동이다. 이러한 면은 미술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미술교육의 교육적 관점이 예술가적 소양이라고 생각되는 미적 감수성, 정서, 창의성 등의 소질을 가르치는 것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이니 만큼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는 품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술의 특성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미술 교과의 목적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 계획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묘사위주의 숙련 기능 외에도 현대 미술에서 일반화되는 추상적 표현에 대한 교육도 균형 있게 실시해야 바람직 할 것이다.

어떠한 교과든 수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과서이다. 미술 교과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교과서가 자유로운 창작 의욕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과 생각을 모두 존중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미적 가치와 현대의 미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함을 주의해야 한다.

42) 노영자, 이인숙. (2007), 고등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p.6.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추상회화 내용 분석

미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며, 미술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의 지침서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활동의 핵심인 기본매체이다. 또한 미술교과서는 학생의 동기유발을 가능케 하고 미술의 본질적 학문의 요소를 학생들에게 선별, 제시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돕고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2010년에 1,2,3학년의 내용을 모두 통합시킨 새로운 중학교 미술교과서로 9개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중 5종의(교학사, 지학사, 일진사,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교과서를 가지고 미술 교과서의 추상회화 영역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교과서 집필진 분석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받아 만들어지는 5종 검정교과서로 대학 교수 및 교과서 전문가의 민간 출판사가 제작하여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편찬된다.

제2차 교육과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현행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류

교과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발행
중학교 미술(1,2학년)	노영자 외1명	(주)교학사	2010.03.01
	김용주 외3명	(주)지학사	2010.03.01
	김옥숙 외2명	일진사	2010.03.01
	고승혜 외4명	두산동아	2010.03.01
	박은덕 외3명	(주)중앙교육진흥소	2010.03.01

<표 2>의 각 출판사별 집필진을 살펴보면 교학사 2명, 지학사 4명, 일진사 3명, 두산동아 5명, 중앙교육진흥연구소 4명으로 볼 수 있다.

각 단원별 집필진의 전공현황과 편집자의 현직교사의 비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을 분석하여 보면 <일진사>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집필자 수 중 현직교사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과서가 계획된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 3>를 분석하여 보면 교과서 단원별 집필자 수가 적고, 전공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교과서 단원별 집필자 전공 현황

출판사별	단원별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공예	서예	교육	기타	합계
교학사	미적 체험		1			1				2
	표현		1			1				
	감상					1				
	부록		1			1				
지학사	미적 체험		1							4
	표현		1	1	1			1		
	감상		1							
	부록		1	1	1			1		
일진사	미적 체험	1				1				3
	표현	2								
	감상	1				1				
	부록									
두산동아	미적 체험		2							5
	표현	1	1			1		1		
	감상		1			1		1		
	부록	1	2			1		1		
중앙교육	미적 체험		1						2	4
	표현		1		1				2	
	감상		1		1				1	
	부록									

<표 3-1> 교과서 단원별 집필자 현직 교사 수 비교

구분	교학사	지학사	일진사	두산동아	중앙교육
현직교사	1	4	1	3	3
집필자수	2	4	3	5	4

<교학사>교과서의 경우 집필자 수가 두 명에 지나지 않고 전공이 서양화와 공예분야로 한정되어져서 한국화, 서예, 조소, 디자인 등 넓은 분야의 공백이 아쉽다. <일진사>교과서도 집필자 수와 다양한 전공의 집필자의 보충이 요구된다. 미술은 분야가 넓고 전공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집필자로는 자칫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과 의견을 담을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두산동아>교과서의 경우 집필자 수는 <교학사>교과서 보다 3명이 많지만, 전공이 서양화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미술교육은 미술의 전 영역을 고루 배우는 과정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자로 이루어져 서로의 전공에 대한 교류와 이해가 더해져야 한다.

<지학사>교과서는 비교적 다양한 전공의 집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 중 감상 영역의 집필자 수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영역간의 공백이 크다.

전반적으로 5종 교과서의 집필자를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지 못해 체계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의 충원이 요구되며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고른 집필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회화부분에서는 서양화 전공자 보다 한국화 전공자의 집필자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미술교과서의 집필은 영역별 전공자, 현직자, 현직교사, 미술 교육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보다 많은 인원 충원이 되어져야 한다.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고른 집필자 배정이 이루어져 한 방향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술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되겠다.

2) 교과서 각 영역의 분량

미술 교과서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미술 교과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에 따른 작은 단원들이 세분화 되어 있다. 현대미술은 영역별 구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미술 교과서에서도 회화, 디자인, 조소 등의 내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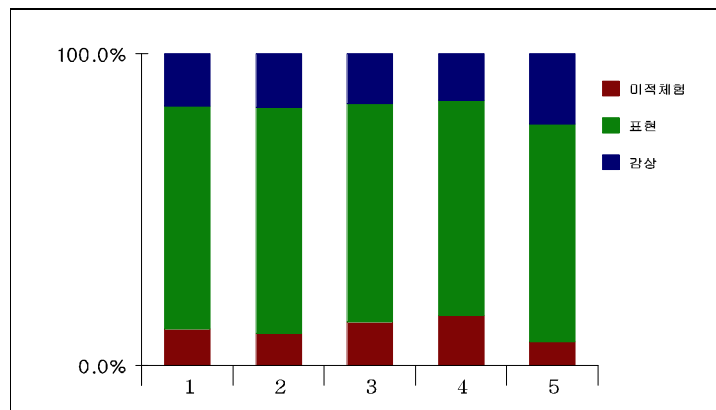
을 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지만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표현 활동을 위한 부분으로 회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 주된 표현을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미술교과서 안에서 감상교육이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며 중요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교과서의 학년별 영역간의 단원 수와 페이지 수를 파악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간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감상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4> 교과서 영역별 단원 수 분석

출판사	학년	미적체험		표현		감상		계	
		단원	쪽수	단원	쪽수	단원	쪽수	단원	쪽수
교학사	1,2학년	2	24	19	148	4	35	25	207
지학사	1,2학년	2	22	12	155	2	37	16	214
일진사	1,2학년	2	26	14	132	2	30	18	188
두산동아	1,2학년	3	32	8	138	1	30	12	200
중앙교육	1,2학년	3	16	34	148	6	48	43	212
계		12	120	87	721	15	180	114	1021

<표 4-1> 각 영역의 비율



<표 4>에서와 같이 교과서 영역별 쪽수 비율을 보면 미적체험 12%, 표현 71%, 감상 17%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와 <표 4-1>를 통해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각 영역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5종 교과서에서 표현 영역이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감상영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표현영역에는 각 출판사별 공통적인 쪽수를 나타내고, 미적체험 영역은 각 출판사에 비해 비중이 적다.

5종 교과서는 감상영역에서 많은 도판을 포함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술사에 대한 도판과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기에 현 교과서의 감상영역에 배당된 적은 페이지로는 심도 있는 교육내용을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3) 감상영역 분석

제7차 미술교과서의 감상영역은 보는 즐거움과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의 비교 감상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른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술관, 박물관의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여 쉽게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5종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들은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감상영역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특색 있는 구성을 하였다.

<표 5>를 중심으로 하여 각 교과서별 감상 영역을 분석해 보면 미술 감상 영역은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 줌으로써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구성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미술교과서 감상영역 분석

구분	학년	감상영역편제		
		중 영역	소 영역	내용
교 학 사	1 2 3 학 년	보고 느끼는 즐거움	미술 작품 감상	미적 가치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
			친구들의 작품 감상	서로의 작품을 감상과 특징을 찾기.
		미술의 흐름	우리나라 미술	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
			동양미술	
			서양미술	
		미술작품 감상	문화의 교류	미술 작품의 주제와 특징,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고,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회, 문화 특성을 이해.
			시대의 반영	
			자연과 빛으로 나타난 아름다움	
			표현 방법의 다양성	
		미술과 문화	과거, 현재, 미래의 맥을 이어주는 전통 미술	전통 미술의 현대적 의미를 이해.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지역 문화재를 이해와 소중함을 느낌.
			세계의 문화유산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현대 생활에서 의미를 이해함.

지 학 사	1 2 3 학 년	미술과 우리문화	우리나라 미술의 멋 우리고장 미술의 향기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 미술관, 유적을 찾고 미술의 향기를 느낌.
		미술작품과의 만남	미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어	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현 양식을 이해함.
			미술 작품 읽기, 쓰기, 말하기	미술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함.
일 진 사	1 2 3 학 년	미술작품	우리나라 다른 나라 미술의 발자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
			미술과의 대화	감상법을 이해하고 표현의 특징과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명화 감상은 이렇게 해 봐요	보고 느낌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면 감상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작품을 관찰 하고, 명화의 숨겨진 뜻을 알기.
		미술문화	미술가와 시대적 특징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
			미술 작품의 이해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
			전통문화의 이해	전통문화와 미술을 이해.
			생활 속에 전통문화의 응용	전통문화를 이해와 현대적 의미.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 축제	지역 문화 축제의 체험을 통해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느낌.
			우리나라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박물관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을 알기보기. 박물관 방문하여 문화재 감상하고 체험.
두 산 동 아	1 2 3 학 년	보고 느끼는 즐거움	감상의 즐거움	주제 및 표현방법을 알고 감상. 친구의 작품을 감상, 자신의 생각을 발표.
			박물관, 미술관 둘러보기	미술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 알아 내고, 감상문 쓰기와 신문 스크랩, 포트 폴리오를 제작.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고 비평함.
			눈으로 보는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된 목적 이해. 유산의 종류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알고 세계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역사와 특징 이해함.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	우리나라 미술과 동양, 서양 미술의 전개 과정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하며, 각 나라마다 어떤 특징을 이해함.

중앙 교 진 흥 연 구 소	1 2 3 학 년	감상	미술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
			동양 미술의 이해	동양의 미술품을 감상과 시대별 특징 이해.
			미술과 직업	미술 관련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미술과 직업을 이해.
			서양 미술의 이해	서양 미술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알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
			명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명화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 제작함.

<교학사> 교과서는 작품감상 이전에 감상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 감상의 방법이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감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감상의 기본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친구들의 작품 감상’ 단원은 학생들의 작품위주로 도판을 제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태도, 표현의 특징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른 학생의 작품감상 보고서를 예시로 제시하여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술의 흐름’ 단원은 우리나라미술, 동양미술, 서양미술에 대해 다양한 변천과 시대적 배경,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도판제시와 내용에서는 각 시대별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에서는 시대적 특징의 단편적 지식만을 제시만으로 그치고 있어서 서양미술사 부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 졌다.

‘작품감상’ 단원은 작품의 주제, 조형의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의 관점에서 감상을 유도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미적가치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는 수준 높은 감상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생의 작품 감상비평문을 예시로 제시하여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쉬운 점은 작품 감상관점의 설명이 부족하다.

‘미술과 문화’ 단원은 미술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고 현대 생활에서 그의 미를 찾는다. 현대의 삶에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미술에 반영된 예를 찾아보고,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지역 문화재나 박물관을 견학하고 보고서 작성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대한 역할에 관해 토론을 유도한다.

<지학사> 교과서의 미술과 우리문화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특징과 역할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관이나 미술가의 유적을 찾아보고 미술 감상을 유도하였다.

미술관 기능을 이해하며 미술 감상 뿐 아니라 감상에서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중시하여 감상은 수업 중에 학생을 이해시키는 것은 교사 몫이 아니라는 수동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활발한 감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미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어.’ 단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 시대적, 양식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미술사적 흐름을 단순히 시대구분으로 제시하지 않고 미술과 종교,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미술사적 지식이 부족한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추상미술의 대표적 작가인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작품으로 추상미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몬드리안의 단순화 단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추상화의 변천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읽기, 쓰기, 말하기’ 단원에서는 미술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시대에 따라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크게 다른 두 작품에 대해 비교하면서 제시하였다.

타 교과서와 다르게 눈이 띄는 것은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워 생각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아쉬운 것은 감상문에 대한 내용 설명이 미흡하고 방법에 대한 설명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진사> 교과서는 ‘미술과의 대화’ 단원에서 먼저 미술 감상법을 이해하고, 표현의 특징과 미적 가치를 판단하도록 구성하였다. 작품 감상하기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위주로 제시되어 있으며 아쉬운 점은 회화, 수묵화, 포스터, 공예 등의 다양한 작품들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부분 아크릴 물감재료로 그린 회화로만 제시되어 있다.

‘미술 작품의 이해’ 단원에서는 한국미술, 동양미술, 서양미술의 시대적인 내용과 작품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작품의 설명에서 시대적 배경보다는 작품의 단편적인 설명만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직접 미술관을 찾아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의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여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동아>교과서는 ‘작품감상’ 단원에서는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도판제시에서는 우리 몸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이 그린 작품과 작품 감상수업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둘러보기’ 단원에서는 미술관을 찾아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내용들을 신고 있다. 미술관 관람에서부터 감상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미술품 관람 후 감상문 쓸 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게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형의 요소와 원리, 표현 방법의 관점에서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술관 관람의 모습을 도판으로 제시하였는데 미술관 관람의 태도와 관람방법이 함께 수록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에 좋을 것이다. 작품전시회를 준비하는 사진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작품감상 기록장,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다양한 감상을 유도하였다.

‘눈으로 보는 세계문화유산’ 단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된 목적을 이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종류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나라마다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감상하고 각각 어떤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타 교과서와 다르게 세계 각국의 중요한 세계문화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계지도 위에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미술’ 단원에서 우리나라와 서양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미술에서 독창적인 우리나라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예, 진경산수화의 내용이 더 첨가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서양미술 작품은 이집트미술, 중세미술, 바로크미술, 현대 추상화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미술과 서양미술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과 서양의 미술사가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서양미술에 할애하는 부분이 많아 서 다른 나라 미술의 이해에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비엔날레’ 단원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비엔날레에 행사된 내용과 도판들이 제시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므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다.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는 짝수 해에 개최되며, 그밖에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비엔날레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작품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느끼게 한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교과서는 ‘미술 감상’ 단원에서는 올바른 감상을 위해 감상의 단계, 평가 관점, 감상의 여러 가지 방법, 토론을 통한 감상, 작품감상보고서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단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민족정체성을 함양하며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내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도판 설명에서 어떠한 민족정서가 반영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작품의 외피적인 지식만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양 미술의 이해’ 단원은 중국미술과 일본미술, 인도미술, 동남아 미술의 시대적 흐름과 양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동양의 여러 나라 미술을 부각시킨 점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미술과 직업’ 단원에서 미술관련 직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술관련 직업의 세계를 탐색과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고 미술과 직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다른 학생 쓴 직업 보고서를 예시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술과 관련된 화가, 조각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공예가, 건축가, 애니메이션 등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명화를 활용하여’ 단원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명화를 활용하여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명화와 현대미술의 만남을 많이 부각시켜 현대미술 속에 명화가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4) 추상회화 관련 단위 영역별 분석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각단위에서 추상회화 관련 단위의 선정기준은 단위 적합성 여부이다. 지도목표나 내용상의 조형요소와 원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단위를 살펴보고 추상회화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서 단위 내에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주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출판사 별 1,2,3학년 교과서에서 추상회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위를 각각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의 미적체험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에 흔히 접하는 주변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조형 환경에서 관찰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여 활용 방안으로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술품이 지니는 문화적 및 지능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6> 교과서 관련 단위 영역별 분석- 미적체험

영역	단위		내용	페이지
	대단원	소단원		
교 학 사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자연에서 조형으로	자연의 형태와 색채, 구조의 아름다움을 조형물을 통해 표현.	10~11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생활 속의 미술	인간생활을 고려한 시각 문화 환경을 찾음.	16~19
		생활과 친환경 미술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 환경의 중요성 이해함.	28~29
		거리로 나온 미술-공공미술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공공미술을 찾아보고, 그 역할을 이해함.	20~21
지 학 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다양한 시각으로 자연을 관찰해 보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를 생각함.	10~13
일 진 사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징을 찾음.	8~11
		아름다운 자연과 시각적 만남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특징, 색채의 아름다움을 느낌.	12

두산동아	아름다운자연, 아름다운구조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환경의 특징과 중요성 이해.	8~9
		자연에서 배우기	조형 예술의 의미와 자연의 조형 예술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	10~11
		생활 속의 조형미	우리의 생활에서 시각 문화 환경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아봄.	12~13
		아름다운 구조	자연환경이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의 형태, 구조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봄.	14~16
	우리와 함께하는 시각문화	생활 속에 숨 쉬는 영상문화	영상디자인의 특징과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 디자인 감상과 특징이야기.	22~23
아름다움의 발견	아름다움을 찾아서	형대를 이루는 기본 요소와 조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 알아봄.	24~29	
중앙교육	미적체험	자연환경을 닮은 조형물	자연물의 원리를 응용한 조형물의 특징을 이해.	12~14
		생활 속의 시각 문화 환경	시각문화가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	16~19
		조형 요소와 원리 발견	자연과 조형물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	22~25

전체적으로 볼 때 추상회화 도판이 미적체험 영역에서는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만, 생활에서 미술을 느끼고 경험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미적체험 영역은 도판이 적게 제시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미적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모든 사물, 환경 등이 광범위하게 주제로 다루고 있다.

추상표현 작품들도 대규모 건축물이나 환경조각, 전통 문화재, 벽화, 생활용품 등 주변의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추상적인 조형미를 발견하게 하고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 주입을 위해서 추상회화의 지도는 필요하다.

추상미술의 지도방안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눈과 자유로운 세계로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추상회화의 미적시각 표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자기표현이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다.

<표 7>의 교과서 관련 영역별 분석의 표현영역은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들의 발상을 북돋워 주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창의적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다양하게 상상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한 여러 작품들을 도판으로 수록하여 추상의 다양한 표현세계를 볼 수 있어 좋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의 형태에서 추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수록하여 추상화를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교과서 관련 단원 영역별 분석- 표현

구분	단원		내용	페이지
	대단원	소단원		
교 학 사	표현의 즐거움	관찰과 표현	주변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 대상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다양하게 표현함.	34~35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대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고 표현하는 방법.	36~37
		오감을 체험하고 그 느낌을 나타내면	오감 체험을 통해 사물의 특징을 지각하고, 그 감성을 표현함.	38~39
	인물의 아름다움	다양한 인물의 표현	인물화의 뜻과 종류를 알고 작품 감상을 통해 인물의 표현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찾아보고, 표현의 차이점을 이야기함.	60~61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	64~65
	추상표현	추상으로 표현하기	추상의 의미를 알고 추상의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	88~91
	심상의 세계	느낌과 상상의 세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창의적 표현함.	92~93
		미술과 음악의 만남	음악을 듣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함.	98~99
		평면에서 입체로, 그리고 행위로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확장되고 있는 미술의 범위에 대해 알아봄.	112~113
	공간 속의 입체	입체의 아름다움	특징과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함.	116~117

다양한 현대 조소	추상 조형의 즐거움	추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공간 속에 나타난 입체의 미를 이해함.	122~123	
	새로운 재료, 새로운 표현	현대 조소의 다양한 표현재료 기법에 대해 알고, 재료의 특징의 특성을 살려 표현함.	124~125	
	빛과 영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 매체를 활용한 미술의 표현 방법을 이해함.	128~133	
선에서 이미지로	선을 사용하여 마음껏 그리기	선의 특징과 느낌을 알고 개성 있게 감정을 살려 표현함. 느낌과 생각을 형과 색으로 조화롭게 표현함.	32~35	
	선에서 형으로	선의 느낌과 생각을 형과 색으로 조화롭게 표현함.	36~39	
	톡톡 튀는 연상	어떤 대상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다양 하게 표현함.	40~41	
우리는 날마다 색과 만나고 있다.	색에는 각기 다른 느낌이 있다	색의 감정과 성질을 알고 생활에 활용함.	46~47	
주변의것을 살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답아서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살려 표현함.	66~67	
지 학 사	입체로 말하기	질감과 표정을 살려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질감과 표정을 살려 표현함.	98~103
		움직임을 살펴서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움직임을 표현함.	104~107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주변에 있는 버려진 여러 가지 폐품이나 물건들을 활용하여 형태들을 관찰하고 느껴보고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표현함.	108~111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	새로운 발상에서 추상의 세계로	자유로운 사고로 재료와 기법을 탐색하 여 다양하게 표현. 발상의 전환으로 상 상과 추사의 세계를 나타냄.	112~117	
	여러 가지 표현방법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 하게 표현.	118~123	
디자인의 세계	영상매체의 활용	영상디자인의 영역을 이해하고 표현.	138~139	

일 진 사	조형의 세계	조형의 요소란 무엇인가	조형의 요소를 알고 표현 활동에 응용.	36~39
		조형의 원리에 대하여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며, 주변에서 조형요소와 원리가 적용된 예들을 찾아내고 특징을 이해함.	40~41
		조형과 음악의 만남	그림 속에서 조형과 음악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음악소리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러 가지 조형요소로 표현함.	42~43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표현	개성 있는 인물 표현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특징과 개성을 살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함.	82~83.
	즐거운 상상	상상 속으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	94~95
		다양한 재료와 시도	여러 가지 재료와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나타냄.	96~97
		추상 표현을 살펴보면	추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개성적으로 표현함.	98~99
		새로운 아이디어로 표현하기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 상상의 세계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함.	100~101
	입체로 표현하기	다양한 입체 표현	조소의 종류 및 조형 원리를 알고 표현 응용.	106~107
		살아 있는 표정	인물의 동세, 비례, 표정을 관찰하여 표현함.	110~111
공간 조형 세계		현대 조소의 다양성을 이해함.	112~113	
여러 가지 재료로 표현		폐품 재료를 이용해 입체 작품제작함.	114~115	
두 산 동 아	다양한 조형의 세계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생활경험이나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 상상의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 있게 표현함.	62~65
		여러 가지 표현기법 알아보기	여러 가지 표현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감상함.	68~69
		추상의 세계	추상화의 의미와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의 차이점을 알고 추상 작품을 표현. 여러 가지 추상작품 감상하고 표현하고자 한 주제에 대해 생각함.	72~73
	다양한	새로운	주변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예를 찾아 새	74~75

두산동아	조형의 세계	시각으로 표현하기	로운 시각으로 표현하고 팝 아트, 옵아트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생각함.	76~80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	창의적인 발상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	
	전통회화를 찾아서	새로운 전통회화	독창적인 표현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	92~93
	입체 표현의 아름다움	조형의 원리와 입체표현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제작함.	128~129
새로운 입체표현		현대의 다양한 표현 작품을 감상하고 현대 조소의 경향에 대해 알아봄.	136~138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표현	선의 느낌을 살려서	선의 느낌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로 표현함.	26~27
		여러 가지 표현기법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함.	40~43
		상상과 느낌의 신비로운 세계	상상화를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상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함.	44~49
		인물의 다양한 표현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다양하게 표현함.	50~55
		추상화를 찾아서	추상화의 의미를 알고 창의적으로 표현함.	68~71
		입체로 나타내기	다양한 입체 작품을 감상하고, 조소의 조형 요소와 원리 및 표현 방법 이해함.	84~89
		일상생활을 표현한 미술-미음을 보여줘	일상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을 감상하고 우리의 생활을 표현함.	93~95
		주변 사물 다르게 보기	현대 미술의 재료와 다양한 표현을 이해함.	96~97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함.	98~99		

<교학사> 교과서는 ‘빛과 영상을 이용하여’ 단원에서 새로운 영성 매체 활용하여 표현된 작품들이 수록되어 독특한 표현기법을 엿볼 수 있었다. 회화, 입체, 설치 작품을 골고루 수록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추상회화 작품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추상회화에서 점, 선, 면의 조형요소를 이용한 회화적 구성과 선재, 면재, 양재의 입체구성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지학사> 교과서는 선의 특징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선의 표현 작품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영역 영상매체의 활용에서는 비디오, 네온,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추상작품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현대 미술의 발전과 다양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현대미술의 흐름과 새로운 회화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교과서 비해 전체적으로 추상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전통회화에서도 다양한 현대작품을 수록하여, 전통미술의 발전을 보여주며, 먹을 통한 동양적 이미지의 추상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진사> 교과서는 소묘, 인물화, 폐품을 이용한 조소에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추상적 작품을 수록하여 다양한 감상 자료를 체험할 수 있다. ‘즐거운 상상’ 단원에서는 학생의 유채작품과 조소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학생들의 현대 추상미술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었으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이디어 작품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추상세계’ 단원에서 몬드리안의 추상화 연작작품을 통해 추상화의 제작과정과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작품을 통해서도 다양한 주제로 추상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추상화를 쉽게 이해하였다.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놓았으며, 학생들의 발상을 북돋워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창의적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전통회화’ 단원에서 한국의 전통회화와 현대의 추상 작가들의 산과 풍경 등의 주제로 한 수묵과 수묵채색 작품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한국회화의 변화와 발전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중앙교과진흥연구소> 교과서는 추상 조소작품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독특한 형상의 추상문양과 형태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또한 주제에 따라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단순화하거나 강조된 작품들과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사용한 재료의 특징이 잘 나타낸 가본의 <구성적 인물>, 이영학의 <새>, 피카소의 <황소머리> 등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교과서의 비해 추상회화를 주제로 다루는 부분과 추상회화 도판 제시가 미흡하다.

<표 8>의 감상영역은 미술품의 감상과 미술문화 유산의 이해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감상법을 이해하면서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 원리 등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시대적,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8> 교과서 관련 단원 영역별 분석- 감상

영역	단원		내용	페이지
	대단원	소단원		
교 학 사	미술의 흐름	서양미술-현대 미술	미술 작품의 시대적,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	199~201
	미술 작품감상	표현 방법의 다양성	미술 작품 속에 다양한 표현 방법과 특징을 생각.	208~210
지 학 사	미술 작품과의 만남	미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어	과학적 탐구와 미술, 보이는 세계와 마음의 세계, 다양한 감정의 표현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현양식을 이해.	206~213
일 진 사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이해-현대미술	미술 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	188~190
두 산 동 아	보고 느끼는 즐거움	감상의 즐거움	작품의 주제 및 표현 방법을 알고 감상.	178~179
		우리나라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	우리나라의 근대미술, 현대미술 감상. 서양미술의 현대미술 감상.	193 200~201
중 양 교 육	감상	서양미술의 이해(20세기 미술)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알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	206~210
		명화를 활용하여	명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제작.	212~214

감상영역은 미술품의 감상과 미술문화 유산의 이해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을 보면서 감상법을 이해하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 원리 등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시대적, 양식적 특징을 안다.

감상의 영역은 미적체험과 표현영역에 비해 추상작품의 수가 확실히 줄고 몇 작가의 대표작품만 수록하여 추상미술 감상의 기회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적체험 영역과 표현영역 수업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겠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지미술, 설치미술, 팝아트 등 그림수록과 작품설명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아 많은 볼거리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 인상적 이었다. 감상에서는 대지미술, 설치미술,팝아트 등 그림수록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다양하여 많은 볼거리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 인상적 이었다.

<지학사> 교과서는 추상화의 대표작가의 작품 수록과 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현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추상화의 위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추상미술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진사> 교과서는 동. 서양의 추상적 작품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와 현대의 작품을 수록하여 추상회화의 전체적 흐름과 발전을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덧붙여 그림을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추상회화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추상화의 대표작가의 작품을 수록하여,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추상화의 위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타 교과서와 다르게 20세기 추상회화의 작품들을 한눈에 쉽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잘 수록하였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는 ‘명화를 활용 하여’ 단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명화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명화를 활용한 생활용품, 광고, 디자인 등이 개발된 현대적 이미지의 추상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수록하였다.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추상화의 위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미술, 팝아트 등 그림수록과 작품설명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아 많은 볼거리와 작품에 대한이해가 쉽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 인상적 이었다.

5) 참고 도판 분석

미술과는 교과목의 특성상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각종 도판의 수록이 많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학습의 목적이나 내용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해당 단원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판의 역할은 수업 내용과 밀접하고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술 교과서의 각각의 영역에서 출판사에 따른 추상회화 관련 단원에 참고 도판을 출판사별로 살펴보았다.

<표 9>의 참고도판 분야별 구분에 의하면 수록된 작품의 총 수는 총 693점이다. 이중 회화가 360(52%)점, 입체가 250(36%)점, 설치가 78(11%)점이고 기타 6(1%)점 순으로 도판의 분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회화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작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제시된 회화작품 360점 중 작가의 작품은 276점이(77%)이고 학생작품은 84(23%)점으로 비율이 나타났고, 기성 작가에 비해 학생 작품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표 9> 추상회화 참고 도판 분석

구 분		작가				학생				계
		회화	입체	설치	기타	회화	입체	설치	기타	
교학사	미적체험		6	5			1			12
	표현	38	27	23	4	19	10	3	1	125
	감상	18	4	3						25
지학사	미적체험	1				1				2
	표현	28	23	5		20	23			99
	감상	27	1	2						30
일진사	미적체험					4				4
	표현	23	25	2	1	16	16			83
	감상	11	5	2						18
두산동아	미적체험	8	15	10			2			35
	표현	41	14	1		4				60
	감상	15	6	2						23
중앙진흥연구소	미적체험	2	7	8		2				19
	표현	42	43	8		16	18			127
	감상	22	4	4		2				32
계		276	180	75	5	84	70	3	1	694

교과서 상에서 작가의 작품도 중요 하지만 학생들의 작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학생의 작품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예시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작가의 작품 위주로 진행자 위주의 수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역별 참고작품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참고 작품들이 표현영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자세하게 다루었음에 비해 미적체험이나 감상영역에는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사항에 있어서 올바른 학습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많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추상회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단원이 적다. 그리고 추상회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추상 표현에 대한 도판 해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바람직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 해석에서 내면적 의미와 방법적 해설까지 고르게 제시된다면 쉬운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의 작품 수도 작가의 작품수와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IV. 중학교 추상회화 감상의 지도방안

1. 추상회화 감상교육 향방

추상회화는 선, 형, 색 등이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가지고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색채는 아름다움, 고요함, 색의 약동하는 힘 등과 같이 서로 대조되는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음은 물론 시각적 효과, 개인의 관념 그리고 상징적 의미 등을 드러낼 수 있다.”⁴³⁾ 색채가 지닌 시각적 지각적 효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술 작품의 큰 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추상표현은 외면적으로는 자연의 원천적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과의 내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물의 근원적 형태를 발견하고 ‘형’과 ‘색’이라는 조형요소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추상회화는 여러 미술 사조에 각각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보고, 인지하는 과정이 익숙하게 일반화 되어버린 학습자의 시각을 변화시켜 사물에 대한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추상적 조형미를 발견하게 하고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유입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상회화의 지도는 필요하다.

현 미술교육은 사실상 학습자의 주변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잘못 인식되어지는 것은 현대 미술교육 활동이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습자가 다양한 영역을 고루 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미술 표현만으로는 미술의 영역을 모두 경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과거의 미술이나 다양한 현대 미술의 양상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이 곧 미술을 잘할 수 있는 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⁴⁴⁾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미술교육은 “미적으로 ‘제작하고, 보고, 느끼며, 말하고, 이해한

43) 필립 예나원/한국미술연구소(역)(2004), 「현대미술 감상 길잡이」, 시공사, p.68.

44) 이은적 외, 전게서, p.253.

다.’ 는 일련의 활동들이 긴밀하게 상호관계를 이룸으로 통일적으로 또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러나 이제까지의 미술교육은 표현과 제작의 측면에 편향되어 향수적이고 수용적인 또는 비평적인 면을 소홀히 하면서 심지어 제작 활동에 종속시켜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술 감상과 표현은 양 수레바퀴 같은 것으로 어느 하나만 치중되어서는 결코 제대로 된 미술교육이 이루어 질수 없다. “예술에 있어서 창작은 능동적인 것으로 보고 예술 감상은 수동적인 형식으로 보아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취급함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미적체험의 본질에서 감상과 창작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더욱 옳바를 것이다.” 46) 따라서 효율적인 미술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 활동의 부수적 수단을 여겨져 사시랄 종속되어져 있는 미술 감상 활동을 미술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며, 학습자가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토대는 어디까지나 학습자가 가지는 미술에 대한 관심의 여부이다. 그리고 “동기에 있어서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대체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나에 대한 분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술 감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은 원작을 보는 일이지만 원작은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으므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47)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사실적 형태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학생에게는 흥미를 잃게 하기 쉽다는 점을 앞서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구상회화보다는 추상회화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보고 지도과에서 교사는 사물을 보는 관념적 시각을 버리고 학생 스스로 관찰되는 대상을 자유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45) 박휘락, 전게서, p.21.

46) 박휘락(1998), 「한국 미술 교육사」, 예경, p.126.

47) 김래원(2002),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감상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2. 추상회화 감상 지도안

현대미술에서 추상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 추상회화의 개념과 다양한 표현은 고정된 우리의 인식이나 시각의 틀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새로운 시각 예술세계에 눈을 뜨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상화는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일반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목표는 미술 생산자 교육이 아닌 미술 학습하게 하여 향후에도 미술을 향유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전인적 인소비자 교육’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의 여러 분야를 쉽고 흥미롭게 학습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단원의 추상회화 감상은 이론과 감상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추상회화의 이론 수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추상회화에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각자 스스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여 평가하는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1) 단원

대단원 : 다양한 조형 세계

소단원 : 추상의 세계

2) 단원 선정 이유

본 단원의 설정이유는 현대미술과 현대 생활 속에서 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현대미술의 시발점이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상회화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실시함으로써 추상회화를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랑,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기르기 위해 본 단원을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종합적인 미적 안목을 키워 문화시민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3) 단원목표

(1) 관심도

- 추상회화 작품을 제시 감상하도록 하여 관심도를 증가시킨다.
- 실생활과 추상회화의 단계를 인지시켜 관심도를 향상 시킨다.

(2) 이해도

- 추상회화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3) 학습욕구도

-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습 욕구를 유발시킨다.
- 관심도와 이해도의 증가가 향후 학습욕구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태도

- 작품 감상을 통해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 (1)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와 설명을 사용한다.
- (2) 충분한 자료와 적절한 매체의 활용하여 감상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3) 작품 감상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 하도록 한다.
- (4) 각 작품에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5) 평가

(1) 관심도

- 수업에 관심을 참여하고 작품감상을 통하여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는가?
- 미술의 편협적인 선호도는 개선되었는가?

(2) 이해도

- 추상회화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였는가?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를 파악하였는가?

(3) 학습욕구도

- 향후 지속적인 학습욕구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가?
- 스스로 추상회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가?

(4) 태도

- 감상문을 잘 작성되었는가?
- 토의 내용은 충실하고 논리적이며, 토의학습 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는가?
- 작품감상 시 정숙하고, 진지하게 감상하였는가?

6) 추상회화 감상 교수 · 학습 지도안

<표 10> 추상회화 감상 교수 · 학습 지도안은 중학교 <두산동아> 미술교과서의 5단원 '다양한 조형 세계'에서 '추상의 세계' 단원에 대한 단원별 교수 ·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수업시수는 1차시로 하였으며, 배정된 수업 시간에 따라 전체의 흐름을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제시하였다.

<표 10> 추상회화 감상 교수 · 학습 지도안

단원	다양한 조형 세계				
소단원	추상의 세계	교과서	두산동아 p.72~73	시간	(50분)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수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료를 확인 점검한다. · 교과서 학습목표, 내용 읽는다. · 학습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추상이 무엇일까요? -추상미술을 본 적이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인지한다. ·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서 학습할 내용을 안다. (두산동아 p. 72~73) · 질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환경조성 및 흥미 유발한다. · 단원설정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 칸딘스키 추상작품을 감상하며 발생과정을 설명한다. ·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 감상하면서 작품에 대한 느낌을 감상지에 기록한다. · 작가의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추상회화 특징을 지도한다. · 서로 느낌을 비교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회화 개념을 이해한다. ·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추상회화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안다. · 작품을 통하여 추상회화의 단순화 과정을 알고 추상화 제작의 과정을 이해한다. · 이해가 어려운 점을 질문 한다. · 작품 감상 느낌을 작품 감상지에 적어 본다. · 서로의 느낌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게한다. 그리고 답해준다. · 토론 학습시 산만하기 쉬우므로 정숙함 속에 토론 하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간략하게 정리 한다. · 수업 평가한다. · 차시학습 예고한다. · 작품 감상지 수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비평가 이해한다. · 차시학습 인지한다. · 작품 감상지 제출한다. 	

칸딘스키의 추상작품을 감상하여 추상회화 발생과정을 설명하고 칸딘스키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해 봅니다. 그 후, 추상 표현의 한 갈래로 대상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한 후 몬드리안의 <붉은 나무> <회색나무> <꽃이 핀 사과나무> 연작을 다 함께 감상하여, 대상을 단순화 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추상회화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 추상회화 작품의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이므로 감상지도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상한 내용을 토론하고 언어화하여 작가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감상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단계별 세부 지도안

수업 전 준비해야 될 자료도 그 양이 많고 수업 중에도 이것들을 적절히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추상회화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반응과 학습 성취도를 수업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설명의 내용과 용어의 신용도 학습자 중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세부적인 학습지도안을 작성 실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11>는 칸딘스키의 작품설명과 함께 칸딘스키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명상과 사색을 느낄 수 있음을 지도한다.

<표 11> 칸딘스키 세부 지도안

단 계	학습 내용	학습활동 (설명 및 판서)	유의점
도 입	작 품 세 계	· 칸딘스키의 작품세계의 대략적 설명한다. 최초의 추상회화제작 작가이다. 재현적 회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론과 실천을 통해 정당화시킨 추상회화의 선구자이다. 구체적 형태 없이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추상화를 창조한 화가이다. 자연의 제약 없이 추상 충동에 의해 그려지는 칸딘스키의 추상작업은 인간 내면세계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평면에 조형적 요소를 통한 생명감의 표현이다.	· 음악과 미술의 관계 설명 시 공감각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감각 우리는 색깔을 들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소리를 볼 수 있다.)
전 개	발 생 과 정	· 칸딘스키의 작품들 중 구상적인 요소가 보이는 그림과 점차 추상화되어 가는 3단계의 그림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1단계: <그림 5> 여자들이 있는 무르나우의 거리, 1908. 약간의 변형이 있으나 형태가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다. 자연의 외관이 눈에 띄게 주관적으로 처리되어 '내적 필연성' 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세 가지 작품을 동시에 감상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발생 과정	<p>2단계: <그림 6> 낭만적 풍경, 1911. 표현주의적인 화풍으로 대담한 전환을 시도했다. 약간의 형태만을 짐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다.</p> <p>3단계: <그림 7> 검은 곡선이 있는 그림, 1912. 칸딘스키의 예술에 있어서 무대상의 추상이 확고하게 성립됨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불규칙적인 작고 큰 선이 교차하면서 불가사의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선, 색, 면, 점만이 화면에 존재한다.</p> <p>· 칸딘스키는 인상, 즉흥, 구성의 세 단계를 거쳐 작품을 제작하였다.</p> <p>1단계: <그림 8> 인상 V, 1911. 자연으로부터 혹은 자연을 보고 받은 즉각적인 느낌 인상이라 하였다.</p> <p>2단계: <그림 9> 즉흥19, 1911. 작가 내부의 세계 정신적인 표현을 즉흥이라 하였다.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감흥을 자연스럽게 화면에 정착시키려 했다.</p> <p>3단계: <그림 10> 구성5, 1911. 내적 필연성이 무의식적, 우발적, 음악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며, 장기간의 작업을 통해 작가의 내재된 느낌의 표현을 구성이라 하였다.</p>	<p>· 예시된 작품들이 인상, 즉흥, 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제작된 작품들이라는 것을 설명한다.</p>
정리	작품 세계 정리	<p>· 물질적인 것: 외부의 세계- 자연, 대상, 작품.</p> <p>· 비물질적인 것: 내부의 세계- 예술가의 영혼, 감정.</p> <p>·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연결 역할을 하는 요소-감정, 감각, 감동.</p>	<p>·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이므로 반응을 살피는 단계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p>

학생들은 칸딘스키의 내면의 표현을 강조한 작품감상을 통해 개인적인 반영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재미있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한다.

<표12>는 추상표현의 한 갈래로 대상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몬드리안의 나무를 점차적으로 단순화 해 가는 <붉은 나무>, <회색나무>, <꽃이 핀 사과나무> 연작을 순서대로 감상한 후 대상을 단순화 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서 무엇을 나타낸 것일지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12> 몬드리안 세부 지도안

단 계	학습 내용	학습활동 (설명 및 판서)	유의점
도 입	작 품 세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드리안의 작품세계의 설명하고 작품 제작 배경의 설명한다. · 몬드리안은 단순한 직선과 원색에 집착했다. 그의 그림은 치밀하게 계산하여 도달한 평온한 대칭이다. 조화와 질서를 예술 속에서 창조하고자 직선을 사용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전 개	발 생 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드리안의 작품 중 단계적으로 회화를 제시하고 그 발생과 발전 단계를 설명한다. 1단계 <그림 11> 교회가 있는 마을, 1898. 그의 1898년 작품 중에는 하늘, 교회, 나무가 확실히 구분되고 형태가 있는 그림을 제작하였다. 2단계 <교재참고> 붉은 나무, 1908. 앞의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형태들이 사라지고 작은 나무는 선으로만 남게 되며 큰 나무의 색감은 고유한 색과는 거리가 있는 붉은색 계통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뭇가지의 형태도 앞 그림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어서 완전한 구상회화로 보이지 않는다. 3단계 <교재참고> 회색나무, 1912. 나무를 거미줄 같은 선으로 분해 시켜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며, 그림의 균형을 있게 선사이의 공간이 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제와 배경 구분이 사라져 평면적인 화면으로 발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에서 구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이 단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 그림과 다른 그림 그리고 처음 그림을 설명 중 수시로 교체해 가며 제시하여야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전 개	발 생 과 정	<p>4단계 <교재참고> 꽃이 핀 사과나무, 1912. 앞의 그림에서 보이는 형태의 외곽선이 수평, 수직선으로 더욱 단순화되었고 색채는 거의 사라져 완전한 추상회화의 단계의 이르렀다.</p> <p>5단계 <교재참고> 구성 No.10, 1919. 그림에서 보이는 선들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루면서 많은 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들은 색채가 없거나 혹은 몇 가지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완전한 추상의 단계로 발전되었으며 화면은 완전한 평면을 이루고 있고 공간은 무한대 확장하는 듯이 보인다.</p> <p>6단계 <그림 12>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 1922. 교차선의 선적구조는 평면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을 주며, 교차선 사이의 면은 화면에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다. 굵고 검은 색의 수직, 수평선, 면의 분할, 삼원색의 배치 등은 무채색의 바탕과 함께 비례, 균형, 짜임새를 갖춘 기하학적인 화면을 창출하였다.</p>	<p>· 구성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p>
정 리	작 품 세 계 정 리	<p><그림 14> 구성, 1916. <그림 15> New york, New York, 1941. <그림 16> Victory - Boogie-Woogie, 1942.</p> <p>위의 예시작품들은 우리가 많이 접해본 몬드리안의 작품들이다. 간결한 검은 선과 삼원색의 면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그의 예술세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흔히 이러한 작품들을 '차가운 추상'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보다는 그의 간결성, 엄숙성, 단순성, 평면성, 비대칭적인 구성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p>	

학생들은 형태가 없는 작품에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작품에서 보이는 색과 선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20세기 디자인에 수많은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예들어 설명하면 즐거워 할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에 호응과 칭찬을 한다면 재미난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

◆ 칸딘스키의 추상회화 작품 ◆



<그림 5> 여자들이 있는 무르나우의 거리, 1908년



<그림 6> 낭만적 풍경, 1911



<그림 7> 검은 곡선이 있는 그림, 1912



<그림 8> 인상 V, 1911



<그림 9> 즉흥19, 1911



<그림 10> 구성5,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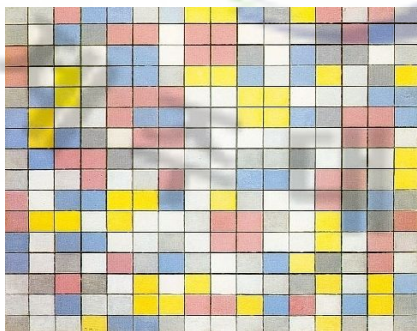
◆ 몬드리안의 추상회화 ◆



<그림 11> 교회가있는 마을 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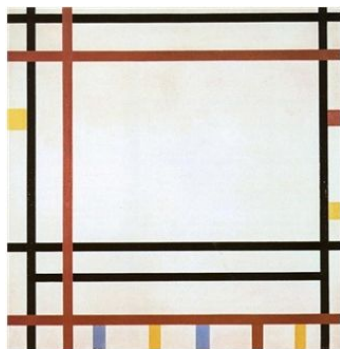
<그림 12>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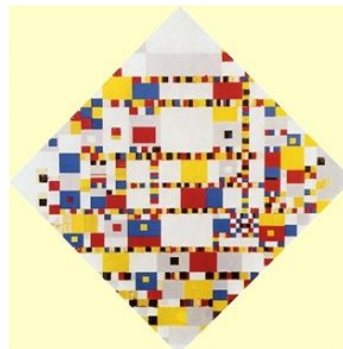
<그림 13> 격자구성 No.9, 1919



<그림 14> 구성, 1916



<그림 15> New york, New York, 1941



<그림 16> Victory - Boogie-Woogie, 1942

V. 결론

현대미술에서 추상회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다. 추상회화는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추상회화의 다양한 측면, 즉 생산과 변형,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직접, 간접적 체험을 통해 고정된 우리의 인식이나 시각의 틀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새로운 시각 예술세계에 눈을 뜨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상화는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추상미술을 접하게 되면 난감함을 가지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는 점점 추상회화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추상미술 감상을 통해 미적 감상과 미의식을 높이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학교 미술교육에서부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특히 미술교과서의 추상미술영역의 분석을 중심으로 좀더 나은 추상미술교육의 학습 지도안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추상회화 감상 교육의 의의를 고찰하고, 2010년에 1,2,3학년의 내용을 모두 통합시킨 새로운 중학교 5종 미술교과서를 가지고 추상회화 영역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수업시간의 배정이 중요하다. 현행 제7차 교육 미술수업 시수 1,2학년은 3~4시간, 3학년 6~8시간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수업 시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로 하여금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추상회화 감상은 현대 미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론을 병행하여 감상 수업을 하고 평가까지 하려면 적어도 영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3시간~4시간 정도는 배당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미술교과서는 기능적인 사실 재현의 회화수업이 많고 추상회화 단원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추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또한 추상회화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나 미술사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으며, 추상회화는 표현활동에 보조적 역할로 운영되고, 기법 위주로만 거의 소개되고 있다.

추상회화의 도판이 실려 있어 시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난해한 그림으로 여길 수 있고 추상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을 뒤받침 해줄 만한 작품의 대한 설명들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개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동일 평면위에 놓고 균형 있게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는 추상 관련 참고 작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미술교과서에 제시된 회화작품 360점 중 작가의 작품은 276점이(77%)이고 학생작품은 84(23%)점으로 비율이 나타났으며, 기성 작가에 비해 학생 작품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교과서 상에서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학생들의 작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미술교과서 집필진의 중학교 현직 교사는 비교적 집필자수 중 현직교사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반영하고 좀 더 융통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 위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교과서는 몇 개의 단원을 혼자서 집필하다 보면 전문성 또는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각 영역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집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추상회화 감상 능력을 기르고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상회화 감상교육을 이해하고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추상회화 영역 분석하여 효과적인 추상회화 감상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김현화(2001),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 노버트 린트/윤난지 역(1994), 「20세기의 미술」, 예경.
- 박휘락(2003),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 박휘락(1998), 「한국 미술 교육사」, 예경.
- 이규선 외(1995),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이윤구(1998), 「미술실에서 미술관 까지」, 두산동아.
- 이은적 외(2005), 「재미있는 미술 감상 수업」, 예경.
- 오광수(1988),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 유재길(2001),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장륙 다발/홍승혜 역(1999), 「추상미술의 역사」, 미진사.
- 필립 예나원/한국미술연구소역(2004), 「현대미술 감상 길잡이」, 시공사.
-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01), 「클릭, 서양미술사」, 애경.
- W. Kandinsky/권영필 역, (1987),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논문>

- 김래원(2002),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감상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춘재(2005), 「미술 감상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정(2010), 「중학교 추상미술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순실(1993), 「감상의 단계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 감상지도의 방법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애(2000), 「DBES에 기초한 미술감상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기 타 문 헌>

교육부(1997),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노영자, 이인숙. (2007), 고등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이은적(2001), 「미술 비평과 감상 교육」, 미술 교육 논총 제12집 제 1호.

월간미술(2002),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98.

고승혜 외4인(2010), 중학교 미술, 1,2,3학년. 두산.

박은덕 외3인 (2010), 중학교 미술, 1,2,3학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용주 외 3인 (2011), 중학교 미술, 1,2,3학년. 지학사.

노영자, 이인숙.(2010), 중학교 미술, 1,2,3학년. 교학사.

김용숙 외 2인 (2007), 중학교 미술, 1,2,3학년. 일진사.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Art Appreci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Abstract Art-

Choi, Sun-young

Art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Yong-hwan

A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art recently, it has become easy for us to see works of art in our every day life. In addition, they have become popular culture that everyone can appreciate and enjoy, not high culture which is enjoyed by a few special people.

Abstract art makes up a very large portion of contemporary art. The concept and various expressions of abstract art have allowed us to break away from fixed perceptions of ours and to open our eyes to the new world of visual art. Furthermore, abstract paintings are being put to use in various forms of art and the field of design, and thus are closely connected to our life now.

Works of art having a tendency toward abstractness continue to make progress, holding a key post in school education and therefo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while there are plenty of works that imply abstract meanings,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and studies on theoretical education 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bstract painting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abstract paintings and to appreciate them by looking at

those paintings in a new way, and also focuses on developing teaching methods which can be put to use in actual art classes for appreciation of abstract art and also meet the interest and desire of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domain of abstract paintings found in 5 art textbooks (Kyohak Publishing Company, Jihaksa, Iljinsa, Doosan Dong-A, and Institute for Better Education) that were reedited in 2010, comparing each publisher. Also, based on the problems of each textbook, it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textbooks, and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of appreciation of abstract art in the current art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5 textbook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allocate time for class of appreciation of abstract paintings. The current 7th educational curriculum does not have enough class hours for art and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for teachers to use various teaching methods. Since being able to understand abstract art serves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art, the average hours for art class should be 3 to 4 hours a week and teachers should have a continued interest in studying teaching methods for abstract ar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art textbooks have more painting classes which concentrate on functional reproduction of objects and there is an insufficient amount of content for abstract art in those textbooks. The analysis of 5 textbooks shows that there are little explanation of abstract artists and theories of abstract art history, let alone specific explanation of it. Thus, there should be reference works of art relating to an abstract in textbooks so that they can be taught connecting each domain of art stage by stage in a balanced way. Like this, when art textbooks have a variety of content and an appropriate portion of each domain, they can contribute to cultivating students'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In order to carry out more effective education for appreciation

of abstract art, it is necessary to pursue constant research efforts and improvement rather than settle for the existing textbooks.

Third, among 360 works of paintings in the art textbooks, the number of works by artists is 276 (77%) and the number by students is 84 (23%), so there are insufficient works of students compared with those of established artists. Not only works of well-known painters but also paintings of students serve an important role in the textbooks because when appreciating the paintings of their peers, students can learn art more easily and have confidence in themselves.

Fourth, although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practising teachers make up the writing staff for art textbooks, in order to reflect practical education implemented in the classroom in the art textbook and make art education more flexible, most of the writing staff should be practising teachers.

Fifth, since professionalism or the link with other units are not met when one person writes several units alone, experts of each domain should participate in writing textbooks to compensate the defect.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seek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appreciation of abstract paintings by analyzing the domain of abstract art focusing on art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desirable ability to appreciate abstract art and help teachers carry out successful art education that meets the interest and desire of students.